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를 매개로

문혁준, 최윤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Hyuk-Jun Moon, Yun-Hee Cho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경로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건강한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2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는 완전매개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양육행동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파악하고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 요인을 찾아내어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자료를 도출하고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발달에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identify a means of ameliorat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250 university students in a metropolitan area; 221 responses were analyzed.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reliability,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perfectionism on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Second, perfectionism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identify a path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hat affect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and factors affecting perfectionism.

Keywords : Psychological Control,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Perfectionism, Human Attack, Mediating Effect

본 연구는 202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Yun-Hee Choi(Catholic.Univ.)

email: eunice@catholic.ac.kr

Received December 28, 2023

Accepted March 8, 2024

Revised January 29,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세대, 계층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특히 자아정체감, 그리고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이 중요한 과업인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아동기, 청소년기보다 더 깊은 수준의 유대감과 친밀함으로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야하며 이는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는 빠르게 초핵가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초핵가족이란 1인, 2인, 혹은 한부모 가족 등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단위인 핵가족보다 더 작은 규모의 가족형태이다[2].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대면소통보다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이 더 편한 MZ 세대의 특성, 3년 간의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2024년 2월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2020년 3월,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입학식 없는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년이 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대면수업의 병행 등으로 이전의 대학생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요인들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 21,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반적으로 20대부터 은둔을 시작하였으며 7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중 26.7%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은둔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 원인으로 취업난과 대인관계문제를 꼽았다[3].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위축,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4]. 이처럼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게 되면 우울과 대인기피 등 정신적 문제 뿐 아니라 알콜과 약물 중독, 비행 등의 행동 문제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자신에 대한 실패감, 존재의 무가치함 등을 느끼게 된다[5].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기질과 가족 환경, 또래 관계, 사회적 환경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6]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 심리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심리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행동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관되게 통제·관리하는 행동통제와 구분되는데 부모가 자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방식이다[8].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의도대로 양육하고자 통제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방식은 자녀의 내·외면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대인불안 및 우울, 행동문제, 완벽주의 등이 그것이다[10]. 부모가 엄격하고 자녀를 과잉 통제하는 경우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고 자녀에게서 높은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11].

완벽주의 성향은 타고난 기질적 영향이 있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엄격하고 통제적인 양육행동, 자녀의 행동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조건적 수용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통제적이며 타인에게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결국 타인과의 관계도 차단하여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모습을 갖게 된다[12].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부모에게 수용되지 못했던 부모와의 경험이 타인의 관계에서 방어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불안정한 모습을 감추거나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등의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역기능적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와 완벽주의 성향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완벽주의 성향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고 매개효과를 통해 경로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시기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영향을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표현 제재는 자녀의 언어표현을 제재하고 감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인신공격은 잦은 감정기록과 자녀에 대한 인신공격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정 철회는 자녀의 잘못을 빌미로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책감을 주어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행동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표현 제재 .81, 인신공격 .85, 애정철회 .78로 나타났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구하고 설문지를 진행하였으며, 250부를 배포하여 237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누락된 16부를 제외하고 221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70명(31.7%), 여학생이 151명(68.3%)이며 학년별 구분으로는 1학년 120명(54.3%), 2학년 78명(35.3%), 3학년 21명(9.5%), 4학년 2명(0.9%)으로 1학년이 가장 많았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N=221)

Spec.		n	%
Gender	Male	70	31.7
	Female	151	68.3
Grade	1	120	54.3
	2	78	35.3
	3	21	9.5
	4	2	0.9
All		221	100.0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Batber[8]가 제작한 청소년용 부모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 16문항에 Olsen과 그의 동료들[13]이 2문항을 추가하여 18문항으로 제작한 것을 안명희[14]가 번안하여 완성한 아동용 부모심리통제척도를 신희수가[15]가 대학생에 맞게 어휘를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표현 제재, 인신공격, 애정철회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대인관계문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Villasenor[16]가 개발한 '대인관계문제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김영환 등[17]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KIIP-C)'를 사용하였으며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사회적 억제, 냉담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하위요인을 합하여 대인관계문제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2.3 완벽주의

대학생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8]가 개발한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정승진[1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부모가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부모의 기대', 부모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부모의 비난', 실수는 곧 실패라고 생각하는 '실수에 대한 염려',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개인적 기준', 자신의 능력과 수행을 의심하는 '수행에 대한 의심', 정리정돈과 조직화를 중요시하는 '조직화'의 6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긍정적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인적 기준 문항과 조직화를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 통합하여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 5인에게 도구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 이해에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23년 10월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50부를 배포하여 23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누락된 응답문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22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검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20]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중 표현 제한은 대인관계문제($r=.42, p<.001$), 완벽주의($r=.38, p<.001$)와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중 인간 공격도 대인관계 문제($r=.48, p<.001$)와 완벽주의($r=.49, p<.001$)에 대하여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중 애정철회 또한 대인관계 문제($r=.48, p<.001$)와 완벽주의($r=.44, p<.001$)에 대하여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도 완벽주의와 높은 정적 상관 결과가 나타났다($r=.55, p<.001$). 이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문제도 높게 나타났으며 완벽주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perfectionism (N=221)

Variable	1	2	3	4	5	
Psychological Control	1	1				
	2	.78***	1			
	3	-.70***	.80***	1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42***	.48***	.48***	1	
5. Perfectionism		.38***	.49***	.44***	.55***	1

1. expression restriction 2. human attack 3. withdrawal of affection
*** $p<.001$

3.2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20]가 제시한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의 매개분석은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이 분석의 과정에서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이 없어야 한다. 본 연구의 VIF값은 1.32~3.81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1.83~1.99 이므로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가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으므로 매개분석을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 중 인신공격은 매개변수인 완벽주의에 영향을 주었으며($\beta=.37, p<.01$) 영향력은 24%로 나타났다. 2단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신공격($\beta=.24, p<.05$)과 애정철회($\beta=.26, p<.01$)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완벽주의는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9, p<.001$). 3단계에서 인신공격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beta=.09, p>.05$)

Table 3. Correlation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perfectionism (N=221)

		Step 1	Step 2	Step 3
		Perfection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Psychological Control	상수	1.92 ***	1.45 ***	1.45 ***
	expression restriction	-.02	.05	.06
	human attack	.37 **	.24 *	.09
	withdrawal of affection	.17	.26 **	.20 *
perfectionism				.39 ***
R^2		.24	.26	.38
adj. R^2		.23	.25	.37
F		23.33 ***	25.65 ***	32.92 ***

*** $p < .001$, ** $p < .01$, * $p < .05$

회귀계수가 .24에서 .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완벽주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강해지고 이는 대인관계문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 문제, 완벽주의의 관계와 경로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서 완벽주의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 간에는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도 높았다는 Joo와 Bae의 연구[4], Shin과 Ahn[7], Craddock, Church, Sands[21]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자녀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재하거나 부모의 감정에 따라 일관성 없는 규칙을 적용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할 경우에만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조건적 승인(conditional approval)을 할 때,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해지고자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22].

또한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 성향은 대인관계문제와도 상관성이 높았는데 Ahn과 Hong[23]의 연구와 Park,

Cho, Kim[2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게 되면 완벽주의가 강화될 뿐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되어 자신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거나 거리를 두는 등 사회적 위축행동을 보이게 된다[25].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가 완전매개하였다. 이는 Eliot와 Thrash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6].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하위요인 중 인신공격이 매개변인인 완벽주의에 영향을 주었는데, 인신공격은 잦은 감정기복으로 어머니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으며 자녀에 대해 무시, 모욕하는 양육행동이다[15].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은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으로부터 행동기준을 배울 수 없어 부정적인 양육형태로 지목되고 있으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없으므로 늘 불안한 정서 속에서 완벽주의는 강화된다[27,28]. 그리고 이러한 완벽주의를 통해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체벌 등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그 결과의 중대함을 알고 조심하지만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통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비일관적 태도 등 양육행동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향관계에서 매개하고 있는 완벽주의 수준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압박과 기대,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과소평가하는 스스로의 낮은 자아존중감 등 원인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인식하도록 도와 그 영향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내적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에 한정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누적적 특성이 있으므로 그 중단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인 대학생 시기를 구분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통제 중 인신공격성 통제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앞선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양육행동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References

- [1] K. J. Gwak, Mapping Your Life in 20s,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Center. 2013.
- [2] H. K. Chang, E. J. Kim, Y. R. Kim, S. Y. Kim, B. Y. Sun, J. H. Choi, The Future of Families and Foresight for Women and Family Policies in South Korea(II),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12.
- [3]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2151700530> (accessed Dec. 13, 2023)
- [4] H. W. Joo, H. B. Bae,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5, No.2, pp.41-62, July. 2020. DOI: <https://doi.org/10.21321/jfr.25.2.41>
- [5] R. F. Baumeister, M. R. Leary,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117, No.3, pp.497-529, May. 199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6] S. H. Lee, J. Y. Lee, "Relationship between Nonsupportive Parental Respon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Clarit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1, No.4, pp.375-394, 2013.
- [7] H. S. Shin, M. H. Ahn, "Perceive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erfectionism and the need for approva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5, No.3, pp.621-641, 2013.
- [8]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67, No.6, pp.3296-3319, Dec. 1996. DOI: <https://doi.org/10.2307/1131780>
- [9] A. Y. Lyu, S. H. Yoo, K. M. Yun,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2, No.3, pp.135-155, 2014.
- [10] B. K. Barber, E. L. Harmon,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 pp.15-52, 2002. DOI: <https://doi.org/10.1037/10422-002>
- [11] G. L. Flett, P. L. Hewitt,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The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Vol.51, No.1, pp.50-57 Mar. 1995.
- [12] M. R. Leary, R. M. Kowalski, *Social Anxiety*, NY: Guilford Press. 1995.
- [13] S. F. Olsen, C. Yang, H. H. Craig, C. C. Robinson, W. Peixia, D. Nelson, J. Nelson, S. Jin, J. Wo,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APA) Books, pp. 235-262, 2002.
- [14] M. H. Ahn,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 Mediating role of maternal emo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29 No.4, pp.867-885, 2010.
- [15] H. S. Shin, *Perceive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nalize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Perfectionism and the Need for Approval*,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2.
- [16]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aer, G. Ureno, V. S. Villasenor,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6 No.6, pp.885-895,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85>
- [17] Y. H. Kim, J. H. Kwon, S. H. Hong, Y. K. Jin, Y. R. Cho, E. Y. Park, Validation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C and KIIP-P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1, no.2, pp.391-411, 2002. DOI: <https://doi.org/10.15842/kicp.2002.21.2.009>

- [18] R. O. Frost, P. Marten, C. Lahart, R. Rosenblate,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14, 449-468, 1990.
- [19] S. J. Chung,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 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reducing the perfectionism*,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20]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1] A. E. Craddock, W. Church, A. Sands, "Family of origin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erfectionism",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Vol.61, No.3, 136-144, 2009.
DOI: <https://doi.org/10.1080/00049530802239326>
- [22] D. E. Hamachek,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Vol15, 34-52, 1978.
- [23] J. Y. Ahn, H. Y. Hong,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Vol.14, No. 1, 25-52, 2022.
- [24] H. W. Park, H. Y. Cho, H. W. Kim,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Adult Children of the MZ Gener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 No.1, 2023.
- [25] H. K. Jeon, "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dult attachment of students in universit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eed for approval" *Studies on Korean Youth*, Vol.26 No.3, pp.165-193, 2015.
DOI: <https://doi.org/10.14816/sky.2015.26.3.165>
- [26] A. J. Elliot, T. M. Thrash,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ar of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0, pp.957-971, 2004.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326202>
- [27] D. Baumrind, "The contributions of the family to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children", *Schizophrenia Bulletin*, Vol.1 No.14, pp.12-37, 1975.
DOI: <https://doi.org/10.1093/schbul/1.14.12>
- [28] D. Baumrind, "New directions in socialization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Vol.35, pp.639-652. 198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35.7.639>

문 혁 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1999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부모-자녀관계, 보육정책

최 윤 희(Yun-Hee Choi)

[정회원]



- 202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이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관심분야>

부모자녀관계, 아동발달과 환경